

◀ 특별기고 ▶

# 제주도 언청이 무료수술을 다녀와서

서울대학교병원 구강외과

레지던트 1년차 최진영



〈민 병 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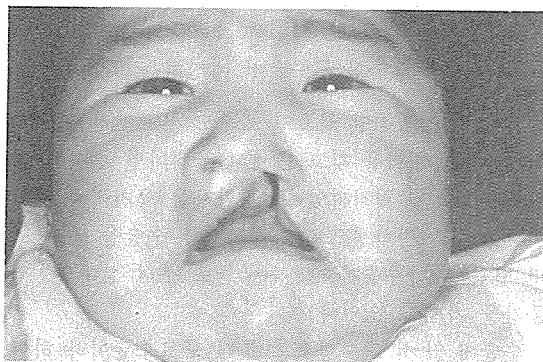
여름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오고나니 의국내의 모든 동료들이 언제 휴가를 받아야 삼복 더위에 환자들로부터 해방되어 멋있게 보낼수 있을까? 하고 얘기들이 한창이다. 물론 나라고 예외 일리가 없다. 이번 여름 휴가는 나로서는 결혼후 첫 휴가로 레지던트로 주치의 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번번히 여행한번 못다녀온 터라 아내와 같이 보낼생각중이었다. 지금껏 휴가 기간을 적어내지 못하고 있던차에 Chief선생님으로부터 이번 여름휴가에 민병일 교수님의 집도로 시행하는 제주도 무료 언청이 수술에 같이 참여하게 됐으니 휴가기간을 이에 맞추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 여름휴가를 아내와 같이 보내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아울러 제주도 관광 및 토순 및 구개파열수술에 관한 보다는 많은 공부를 할 기회려니 하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8월2일 토요일 수술(토순 및 구개파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비행기편으로 제주도로 향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이내 제주 lions club에서 총무되시는 분이 우리 일행을 정중히 맞아 주시고 또한 제주도립병원에 인접한 곳에 숙소도 정해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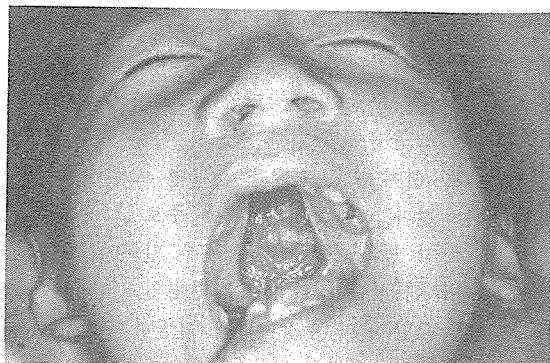
숙소에 여장을 풀고는 즉시 해변가로 가서 해수욕을 즐기고 싶었지만 곧바로 수술기구를 병원에 옮기고 또한 수술장을 확인한 후에야 실수가 있었다.

8월3일 일요일 아침, 제주도내에서 한달여에 걸친 신문, 방송등을 통해 언청이 무료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환자 30여명에 대한 예진이 있었다. (이는 제주시내 소재한 영도치과(원장:吳德根)에서

행해졌는데 굳이 이곳 치과에서 예진을 하는 것은 치과에서 토순 및 구개파열을 수술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다) 예진은 교수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명씩, 수술할 총 10명을 나이가 많은 순서로 또한 결손이 심한순서로 선발하셨다. 30여명 중에서 10명에 대한 발표가 있자 이번에 수술을 받게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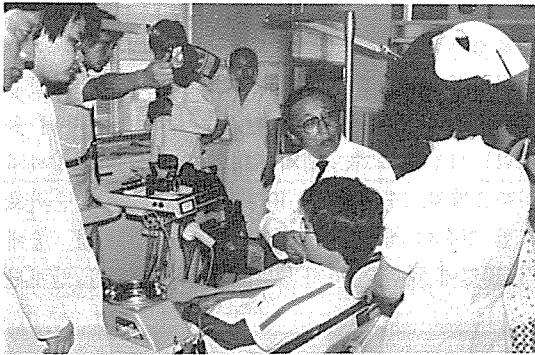
〈토순환자의 수술전 모습〉



〈구개파열환자의 구강내 소견〉

가족과 받지못하게된 가족 사이에 희비쌍곡선이 벌어졌다. 보다 많은 환자가 수술을 받을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사업은 제주도 Lions Club과 서울중앙 Lions Club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환자의 입원비 일체를 부담하는데, 수술은 교수님께서 무료로 제공하시지만 그 비용이 10명만해도 엄청난 비용이었다.

구개파열환자 6명 및 토순환자 4명등 총 10명으로 확정되어 나와 Chief 선생님은 영도치과 간호원들의 도움으로 구개파열환자에 대한 상부자(splint)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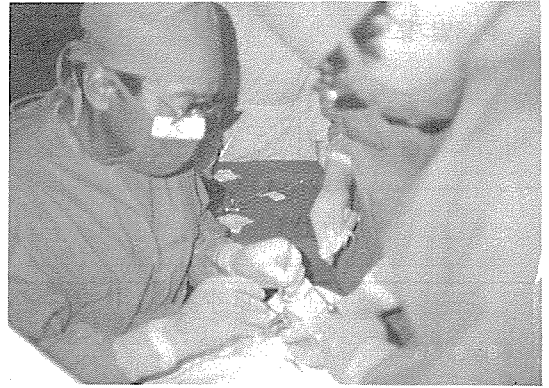


〈민병일교수님의 수술전 예진하는 모습〉

마침내 8월 4일 월요일 제주도 무료언청이 수술에 대한 발대식을 갖고 19세된 구개파열 환자에 대한 첫 수술이 시작되었다(이 환자는 육지에서 대학에 다니는, 장학생으로 가정형편상 수술을 받지 못해 발음이 아주중지못해 친구들로부터 상대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수술에 앞서 교수님으로부터 무료수술이라 하여 조금이라도 환자들에게 소홀함이 있다든지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특별한 당부 말씀이 제셨다. 교수님께서 집도하신지 약 1시간만에 첫 구개파열 환자의 수술이 끝나고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한 후에 곧바로 두번째 수술이 시작되었다. 오후에 하는 수술이라 서로 졸음이 왔지만 참느라 아주 애를 먹었다. 이렇게 하여 오후 수술을 끝내면 보통 5~6시 정도 되었다. 저녁 식사후에는 주로 제주 시내 관광 및 대학 동창들을 만나며 하루 일과를 마쳤다.

이번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민병일교수님과Chief 선생님 또한 같이 구강외과를 전공하시는 교수님의 아들인 민복기씨와 나 4명이었다. 교수님께서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되기전 부터, 그러니까



〈민병일교수님의 집도하시는 모습〉

지금부터 19년전 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교수님의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의료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무료 수술을 시행해 오셨고 또한 이에 대한 공로로 제주도 도민증 1호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새삼 제자로서의 긍지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이 사실은 전부 제주도 Lions Club의 총무가 알려 주셨다)

교수님께서도 언청이 수술을 한 5년만 하면 제주도에는 언청이가 없어지겠거니 생각하고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없어지지는 않고 매년 30여명의 환자가 수술을 받고자 원하고 있다고 한다.

오전에 한명 오후에 한명 하루 2명씩 이렇게 하여 금요일까지 10명의 수술을 모두 마치고 토요일 오전 그동안 수술받은 10명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주의사항등을 알려주고 나머지 후처치를 제주의료원 치과 과장 선생님께 부탁하고 병원 현관문을 나서는데 환자 보호자들의 진심에 어린 인사를 받고보니 요즈음 의료 분쟁이 한창인 이때 진정한 인



〈수술후 환자보호자에게 술후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 민병일교수님〉

술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낄수 있었다. (교수님께서 수술하시는 그동안에도 작년 혹은 그전에 교수님으로부터 수술받은 환자들이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러 오곤했다)

토요일 오후 우리 일행은 제주시를 떠나 훌가분한 마음으로 서귀포로 향했다. 작년 가을 신혼여행 때 와본 서귀포며 중문 관광지였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것 같았다.

토요일 오후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교수님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앞으로 체력이

미치는 한 제주도 무료 언청이 수술을 계속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듣고 교수님의 집념과 의지에 새삼 놀랄뿐이었다.

일요일 아침, 오후가 되면 아내를 만날수 있으려니 생각하니 문득 아내가 보고 싶어진다. 아내도 내가 무척이나 보고 싶으리라 약10일만의 만남이니까.

서울로 향한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이번 여름 휴가를 생각해본다. 새삼스럽게 치과의사가 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고 그리고 가장 값지고 알찬 여름 휴가를 보냈다고.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 (주) 한국파이오니아, 純티타늄시스템 도입 지난 9월10일부터 보철물 제작



주식회사 한국파이오니아(대표이사: 한국남) 가 순 티타늄 시설 기자재를 도입하고, 보철물 제작을 시작하였다. 국내 치과기공계에 27여년간 종사하여 온 한국남씨는 지난 7월15일 (주)한국파이오니아

를 설립, 법인등록을 마치고 순 티타늄 보철물제작을 시작하였으며, 일반 의료용 관련제품도 제작할 계획이다.

동사는 일본 오히라티타늄시스템연구소로부터 첨단소재인 순 티타늄 제작기술에 관한 연수교육과 시설기자재를 도입하고 순 티타늄 관련 치과 보철물을 지난 10일부터 제작하기 시작했다.

신소재 티타늄은 무산소상태의 고온(1, 720℃)에서 용해가 가능하므로 국부의치등의 일반보철물 제작에는 응용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일반보철물 제작가공에도 성공하여 개선된것을 세계적으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국내에 수입, 앞으로 양질의 치과보철물 제작에 기대되는바 크다.

문의처:

(주) 한국파이오니아 ☎ 555-2875